SK그룹, 쓰촨에 어린이학교 건설

SK가 2008년 대지진 참사가 빚어졌던 중국 쓰촨(Sichuan)지역에 학교를 건설했다.

9월1일 개교한 행복 소학교는 최태원 회장이 2008년 5월 쓰촨 대지진 발생 직후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해현장을 찾았다가 어린이들이 임시 천막에서 수업을 받는 모습을 보고 즉석에서 학교 건설을 약속해 지어졌다.

행복 소학교는 약 3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SK건설이 최고 수준의 내진설계와 친환경 공법으로 건설했다.

또한 천문대와 에너지·정보통신 교육관 등 첨단 교육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SK그룹은 9월8일 전문 자원봉사단 SK프로보노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SK프로보노는 일반적인 자원봉사단과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자격을 갖춘 SK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봉사단으로 국내 대기업이 전문 봉사단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봉사단은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비정부기구(NGO)에 법률자문, 세무상담, 판매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이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SK의 온라인·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9/08>

Copyright © 1991 by CMRI